

보도시점 2025. 11. 5.(수) 16:00

배포 2025. 11. 5.(수) 09:00

APEC 정상회의, K-농축산물을 세계로!

- 농식품부 장관, 싱가포르 한우·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올 초부터 발 벗고 나서
- 대중국 파프리카 수출 타결 이후 6년 만에 신규 품목으로 감 수출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27.~11.1.) 기간 동안 한우·돼지고기, 감의 해외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들은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검역 협상 및 수출협력 현안을 조율하고, 각국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2025년 초부터 싱가포르와 프랑스 현지 국제기구를 연이어 방문하며 수출길 개척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 3월 싱가포르 방문 시에는 식품청장과 면담을 통해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는 WOAH 사무총장에게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5월 29일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합의된 검역 조건에는 농식품부 등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엄격한 수출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출하는 수출 업체 명단을 싱가포르 당국이 현지 점검 없이 ‘목록 승인(Prelisting)*’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철저한 검역·방역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이로써 한우고기는 총 6개국**으로 수출 국가가 확대되었으며, 돼지고기의 수출도 현재 홍콩 위주에서 싱가포르 타결을 기점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될 전망이다.

* 목록 승인(Prelisting) : 개별 수출 업체에 대한 현지점검 없이 수출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수출국 정부가 제출하는 업체 목록을 사전 승인-사후 점검하는 제도

** (기존 수출국) 홍콩, 말레이시아, UAE, 캄보디아, 마카오 + (신규) 싱가포르

또한 한-중 정상회담(11.1.)에서는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 검역협상이 17년 만에 최종 타결되었다.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꾸준히 협의가 이어졌으며, 2019년 파프리카 수출 타결 이후 6년 만에 신규 품목으로 감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감 협상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양국은 2023년 1월에 수출검역 요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결은 그동안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해관총서 차관급 인사와의 면담에서 감 수출 양해각서에 대한 가서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는 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이 협상 최종 타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검역요건 검증 절차를 통해 수입검역에는 철저하게 요건을 검토하고, 수출 위험관리방안은 꼼꼼하게 대응하여 중국보다 2배 많은 품목의 수출 요건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국산 딸기와 복숭아 등의 중국 수출 검역요건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중국산(2건) : 양벚('07), 여지('15) / 국산(4건) : 포도('15), 쌀('16), 파프리카('19), 감('25)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중('19: 31억불→'23: 39억불)이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번영과 길운의 상징으로 여길 만큼 감에 대한 인식이 좋아 이번 타결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국 내 유통업계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미 한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현지 고급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단감연합회 등 관련 업계에서도 성명서 등을 통해 이번 성과를 환영하며, 향후 해외 신규시장에 더욱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들을 돌아보며 송미령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K-푸드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지속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이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수현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박제민	(044-201-2072)
		담당자	사무관 문송민	(044-201-2074)

